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조 황 성*

Method of interpretations of Sasang(constitutional) prescription

Hwang Sung Cho, O.M.D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Mu's philosophy is based on the postulation of "Sa Sim Sin Mul". The attempt to actualize the postulation is seen through the books "Kyu-chigo" and "Donggeuisusebowon". That is to say the physiology, pathology and pharmacology of Sasang based on Dong-Mu's philosophy all belong to the category of Sa Sim sin Mul. But the interpretations of Sasang prescription have been made as "The recipe for symptoms", it is different from Dong-Mu's view. Appearing of disease can interpretat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resista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So, I tried to analogize properties of drugs showed in his writings on the assumption of resistance of the constitution.

[Key words] Sasang medicine, constitutional prescription, Lee Jae Ma

I. 緒 論

東武哲學은 四元的 認識體系인 事·心·身·物이란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格致藥』와 『壽世保元』을 흐르는 一連의 사상은 始終 그 가정을 具體化하기 위한 노력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므로 동무의 철학에 바탕한 四象 生理, 病理, 藥理도 事·心·身·物이란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사려된다.

기존 동무의 四象方 解說은 상당부분 證治方(後世方)의 방법으로 이해되었으므로 동무의 實證的 思考가 구체화된 處方 精神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論者는 事·心·身·物이란 構成요소로 四象方에 거론되는 藥性과 處方 構成을 유추하고자 한다.

* 한국 한의학연구소 임상연구부 진단연구실

II. 本 論

四象方 構成에 對한 分析 研究을 위한 前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제조건〉

1. 東武의 哲學과 醫學의 連繫性
2. 既存 韓醫學과 四象醫學의 病證해석 방법의 차이
3. 仲景傷寒方, 宋元明 醫家方解가 四象方에 끼친 영향
4. 四象方劑 構成의 特徵 및 四象本草의 解析

1. 東武의 哲學과 醫學의 연계성

東武哲學의 바탕하에 四象醫學이 탄생되었으므로 철학적인 事·心·身·物의 認識체계를 어떻게 의학의 시각으로 適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格致藁』와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事·心·身·物의 개념을 찾아보면 事의 개념을 例로 들면 決과 誠, 散과 智, 治平과 大, 貌言視聽, …… 등으로 표현되고(儒略) 廣義로는 天機, 狹義로는 天時(天機), 事務(人事), 籌策(知), 識見(行) 또는 蕩…… 등의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性命論)…… (心·身·物 以下 同)

즉, 事·心·身·物의 개념은 그것이 廣義, 혹은 狹義이든 物宅身也, 身宅心也, 心宅事也의 宅이란 개념으로 相互 연계성을 갖고 一物止也, 一身行也, 一心覺也, 一事決也의 의미로 정의되고 人間의 次元에서는 事·心·身·物의 各 四端(事사단-貌言視聽, 心사단-辨思問學, 身사단-屈放收伸, 物사단-意膽慮志) 등으로 정의되고(儒略), 耳·目·鼻·口(事), 肺·脾·肝·腎(心), 頭·肩·腰·臀(身), 頤·臆·臍·腹(物) 또 脈·膜·血·精, 津·膏·油·液,

神·氣·血·精등의 醫學的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즉 事·心·身·物이란 의미는 동무思想을 전개하는 理論的 根據 혹은 認識 體系가 된다.

이러한 認識體系가 心身의 연계성에 의하여 체질적 분류기준이 되고 병증 발현시 사용되는 藥性에까지 철저하게 적용되었다고 사려된다.

2. 既存의 病證과 四象醫學의 病證解釋방법의 차이

既存 證治醫學의 病機視覺은 邪氣正氣의 盛衰와 陰陽失調와 氣血失調및 水液代謝失常 그 밖에 瘡瘍, 腫瘤등의 몇가지로 인식된다 하였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는 病證을 陰陽·虛實로 論하지 않고 각 체질의 保命之主가 어떤 사항에 처하느냐에 따라 이를 升降緩速의 病證으로 논하였다. 곧 四象病證의 輕重은 臟腑陰陽 升降의 緩速에 기인하고 東武處方 역시 緩速의 정도에 따라 배열될 수 있기에 保命之主의 次序가 당연히 결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保命之主란 체질적 正氣의 유여·부족에 따라 그에 역비례하는 邪氣의 유여·부족이 나타나고 이것이 체질적 특성에 의한 升降의 障礙를 가져와 體質病證으로 발현된다. 이점이 既存 八綱辯證, 氣血辯證, 臟腑辯證의 개념과 두드러진 차이점이라 사려된다. 따라서 保命之主의 次序를 가늠할 수 있는 病證과 藥物構成과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病證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이 되나, 藥物構成에 있어서 東武자신의 本草에 대한 새로운 解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關鍵이 된다 하겠다.

3. 仲景傷寒方과 宋·元·明 醫家의 方解가 四象方에 미친 영향

四象醫學을 이해하는 病證과 處方(藥理)에 있

어서 주로 仲景의 六經病證, 그의 宋·元·明 醫家の 病證 및 處方이 引用되었다.

그러므로 『傷寒論』과 宋·元·明 醫家の 病證과 處方을 동무가 인용하여 四象病證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이들을 四象處方과 비교할 때 病證과 處方 구성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 六經病證과 宋·元·明 醫家の 病證에 대한 既存處方이 四象方과 완전한 일치하는 경우는 없음.

둘째 : 病證 등에 대한 기존 『傷寒論』 증처처방의 加減으로 사상방이 구성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상방은 예외없이 기존처방에서 체질에 어긋나는 약성은 제외되고 기존의 처방이 효과적인 경우 체질방에 적용시에는 그 작용이 升陽 혹은 降陰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 작용을上昇시키는 약제의 배합이 가해진다.

셋째 : 病證 등에 대한 기존증치, 傷寒論處方과 四象方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즉, 동무가 病證만 인용하고 새로운 의미의 처방이 쓰인 경우

네째 : 기존병증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새로운 병증개념이 도입되고 새로운 의미의 처방이 사용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사상의학의 병증약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少陰人 表病의 鬱狂初證은 주로 중경의 이론 및 상한론처방을 근거하였고 鬱狂中證에서는 仲景의 이론보다 宋·元·明 醫家の 處方을 근거한 처방을 제시하였고, 亡陽證에서는 중경의 이론 처방이 거의 인용되고 처방 또한 이에 근거한 사상방이 다수 나타나고 간혹 보중익기탕, 제지부자탕 등의 宋元明 醫家の 處方을 기준한 사상방이 나타난다.

裏病의 太陰證 初證은 중경의 이론 및 처방(瀉心湯證)이 인용되었으나 실재는 宋·원·명 의가의 처방에 근거한 사상방이 나타나고, 太陰證 中證과 少陰證에 이르면 중경과 宋·원·명 의가의 이론 및 처방이 다수 나타나고 이에 근거한 사상방

이 나타난다.

少陽人 表病의 傷風證은 중경의 이론과 상한방이 다수 제시되었고 宋·원·명 의가 이론이 약간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처방의 운용은 이들에 근거하지 않은 사상방이 나타난다.

裏病의 胸膈熱證에서는 중경의 이론 및 처방이 인용되고 이에 근거한 사상방이 나타나지만 消渴證에서는 중경이론은 없이 宋·원·명 의가의 이론과 이에 근거한 사상방이 나타난다.

太陰人 表病에서는 오로지 중경의 마황탕증이 제시되고 사상방도 이에 영향받은 바 크나 그 외의 病證 및 처방에 대한 타 의가의 견해는 없었고 새로운 개념의 사상방이 나타난다.

裏病에서는 중경의 이론과 消渴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거의 무시되고 宋·원·명 의가의 이론이 다수 인용되나 이에 대한 처방이 갈근해기탕, 흑호환만이 사상방에 영향을 주고 대다수가 동무의 創案方이다.

太陽人의 表病은 중경 및 宋원명 의가의 이론 등은 전혀 언급이 없고 『內經』, 『靈樞』에 解休證에 대한 인용을 했을 뿐 오직 동무 創案方인 오가피장척탕만 언급하였다.

裏病은 열격증에 대한 朱震亨의 구분이 있었고 張鷟, 龔信 등이 언급하였을 뿐 오직 동무 창안방인 미후등식장탕만 언급하였다.

즉, 인체의 병증을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중경의 육경병증과 이를 보완하는 宋·원·명 의가의 이론을 인용하였고 이를 체질별로 분석하면 少陰人의 腎陽을 상승하고 溫胃(健脾)降陰의 병증은 육경병증으로 거의 설명이 가능하나 表裏病의 中末證에 이르러 宋·원·명 의가의 병인론 등에서 찾을 수 있고, 少陽人의 脾陰을 下降시키고 清陽을 上昇시키는 병증은 육경병증으로 접근시 절반 밖에 설명이 안되어 表病의 結胸證 亡陰證과 裏病의 消渴證 등은 宋·원·명 의가의 병인론에서 거

의 대부분 찾을 수 있다.

太陰人의 表病의 呼散之氣의 부족으로 인한 병증은 육경병증에서 겨우 마황탕증의 例뿐이고 裏病의 吸聚之氣의 過多로 인한 병증은 송·원·명 의가의 갈근해기탕증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太陽人의 表裏病은 전혀 육경병증의 例도 찾을 수 없고 裏病의 열격증의 단계를 주진형이 언급했다. 이처럼 中上焦·下焦의 水穀의 出納과 관계되는 少陰人·少陽人 病證은 육경 및 송·원·명 의가들에 의해 병증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가능하나, 上焦와 中下焦의 氣液의 呼吸과 관계되는 太陰人·太陽人 病證의 해석은 기존의 병증해석 만으로는 그 한계를 나타낸다.

4. 四象方劑 構成의 特徵 및 四象本草의 解析

既存 證治方의 구성은

첫째 : 體質을 不問하고 症을 위주로의 관계로 藥性의 混合을 갖는다.

둘째 : 治療目標과 藥物 相互間의 관계는 五行說의 相生, 相剋에 의한 전체 臟腑의 概念으로 設定한다. 즉, 病症에 대하여 간·심·비·폐·신을 同價의 기준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상호관계를 相生·相剋관계로 論하였다.

세째 : 따라서 各 藥物相互間의 連繫性은 症을 中心으로한 個別的 性向이 強하며, 그 症이란 범 위 내에서 各 症의 性질(血虛 或 氣虛)에 따라 君·臣·佐·使로 設定한 것으로 思慮된다.

이에 反하여 四象方의 구성은

첫째 : 體質(保命之主)을 기초로 하고, 病證도 保命之主의 연장선에서 파악됨. 즉 保命之主의 變化 정도가 病證의 輕重으로 認識되므로 同一 屬性의 藥物組合이 전체 조건이 된다.

둘째 : 治療目標과 藥物相互間의 관계는 既存의 五行說의 概念은 完全 배제되고 體質別 小한

臟器의 保命之主를 유지하기 위한 單位, 臟腑 概念의 性向이 強하다.

세째 : 그 이유는 藥物의 여러 效能중 體質이란 테두리내에서 4가지 屬性의 藥性으로 分類 規定되고 4가지 屬性으로 分類된 藥性들은 各各의 保命之主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의 能力등이 一律的인 東武의 語彙(人蔘 : 補脾和脾, 熟地黃 : 補腎和腎, 麥門冬 : 補肺和肺)로 再構成 되었다. <표1 참조>.

그러므로 東武遺稿에 의한 藥性 相互間의 關係는 症을 위주로 한 君·臣·佐·使가 아닌 保命之主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하에 相互連繫된다.

예를 들면 東武는 既存 本草에 수록된 人蔘, 白朮, 當歸 등의 補氣 或 補血, 健脾燥濕 등의 既存 本草의 效能이 少陰人이란 특수 조건하에서 발휘될 때는 補脾和脾, 健脾直脾, 壯脾而內守之力하는 새로운 의미로 再解析하였다.

그러한 東武의 의도는 體質이란 조건하에 病證을 보는 그의 視覺差로 因하여 病證을 升降 緩速의 次元으로 解析하므로 本草의 效能도

첫째 : 體質의 조건

둘째 : 四象病證概念인 升降緩速의 概念 등이 합치된 새로운 本草 解析에 이른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四象方의 構成은 人體의 保命之主의 상황에 따라 升 或은 降의 緩速을 調節하기 위한 藥物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逆으로 類推하면 어떤 藥物의 使用有無에 따라 현재의 保命之主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東武遺稿의 藥性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難點이 있다.

첫째 : 한 약물에 대하여 既存 本草書에 기록된 많은 效能 및 主治 등이 동무의 새로운 언어로 재표현 되었고, 이 새로운 표현들은 既存 本草의 설명과 어떤 關聯性을 가지고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丑1 참조〉

〔表 1〕 東武 李濟馬의 本草遺稿

藥性	少陰人(脾)	少陽人(腎)	太陰人(肺)
補「和」	人參	熟地黄	麥門冬
健「直」	白朮	山茱萸	五味子
固「立」	甘草	茯苓	砂糖
壯「而內守之力	當歸	知母	山藥
壯「而外攘之力	川芎	澤瀉	桔梗
壯「而充足之力	肉桂	木通	牛黃
錯綜「氣之參伍勻調	陳皮	牡丹皮	石菖蒲
收斂「原	白芍	黃芩	黃芩
定「定」	(定氣定魂) 藿香 砂仁	(安精定志) 桑椹 枸杞子	(安神安意) 元肉 酸棗仁
	(溫肉理)	(滋骨髓)	(開皮毛)
肉骨皮	乾薑 肉豆蔻	石花 童便	天門冬 甘菊
消「痰	半夏 南星	瓜蒌仁 竹瀝	桑白皮 杏仁
解「之表邪	蘇葉 蔥白	防風 羌活	麻黃 款冬化
醒「之眞氣	桃仁 杏花	黃連 梔子	遠志 槲根白皮
滋「之氣	蓬朮 三稜	滑石 猪苓	鬱金 朱砂
爲「元師之藥	附子	石膏	麝香
開「之胃氣而 消食進食	木香, 丁香 香附子	麥芽, 生地 地骨皮 竹茹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能除「之久病	紫河車	輕粉	麝香
通「之」	巴豆 (關格)	甘遂 (結胸)	大黃 (痢疾)

둘째 : 이들 표현들이 갖는 상호 연계성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이는 동무의 철학 또는 病證의

運用精神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原論的으로 동무의 病證에 대한 새로운 認識體系가 그의 철학에 기초하고 그 철학의 근본은 事心身物論에 의거한다는 사실하에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사려되어 이를 근거로 東武 本草遺稿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무는 少陰人·少陽人·太陰人의 小한 臟器에 공통적인 藥性을 제시한다.

2) 그 藥性에서 事·心·身·物이란 조건을 緣系 하므로써 醫學과 哲學의 接木을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연계한다(예 : 少陰人 藥劑)

- ① 事 : 補脾和脾(人參)
- ② 心 : 健脾直脾(白朮)
- ③ 身 : 莊脾而 內守之力, 外攘之力, 充足內外之力(當歸, 川芎, 肉桂)
- ④ 物 : 固脾立脾(甘草)

3) 위의 4가지의 약성은 각 체질상의 건강 상태의 기본조건, 즉 保命之主를 이루며 이를 제외한 기타약물의 약성(定氣定魂 溫肉理 消脾痰……)은 이와 같은 약성이 발휘할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면 위에 언급한 東武의 本草遺稿 藥性에 事心身物의 4要素를 접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

東武의 思想的 근본은 事·心·身·物이란 4要素를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고 기존의 病證도 四象人이란 조건하에서 재구성 되었듯이 東武의 藥性도 기존 本草의 藥性을 四象人이란 조건에서 四象人 臟腑의 小한 部分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각 四象人 藥性 자체가 保命之主를 유지하기 위한 構成要素로 작용하며, 또 四象醫學의 病證治療 시각은 病證에 따른 保命之主의 損傷을 어떤 방법으로 정상으로 還元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保命之主의 構成은 東武의 藥性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나?

그 構成은 크게 保命之主에 直接的으로 관여하는 要素(體的, 理的要素)와 間接的으로 관여하는 要素(用的, 氣的要素)로 二分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少陰人에 있어서 補脾和脾(人蔘), 健脾直脾(白朮), 莊脾而內收之力, 外攘之力, 充足內外之力(當歸, 川芎, 官桂), 固脾立脾(甘草)등의 어휘가 갖는 脾에 대한 體·理的 개념은 그 以外の 藥性和 對比되므로 이는 保命之主의 本體的 要素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에 대한 근거는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 性氣에 있어 태양과 태음, 소양과 소음의 상호보완관계를 논하면서 태음차원의 莊, 소음차원의 固의 언급은 명확하나 태양차원의 周는 神·和의 개념, 소양차원의 弘은 健·直의 개념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사려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의 분석을 약성의 本體的 要素와 이를 補助하는 要素로 나누면 자연히 表裏·升降·緩速에 의한 病證 輕重의 次序와 일치함을 보인다.

固「」立「」란 최초의 保命之主를 이루는 단계로 物四端의 世界, 靜中動의 止의 世界, 精의 次元 등으로 이해되고, 壯「」而內收之力……은 固「」立「」의 次元이 可視的으로 드러나는 行의 世界인 身四端의 力, 血의 概念으로 이해되며, 健「」直「」란 壯「」內收 外攘 內外充足之力的 概念보다 形而上學的 概念으로 볼 수 있다.

즉 壯「」의 概念이 肉體的 要素를 강조했다면 健「」의 概念은 거기에 精神的要素(心四端)가 더 加味된 意味로 생각되며 보다 活動的인 氣의 概念으로 이해된다. 補「」和「」란 가장 形而上學的 概念으로 (狹意로는 遡廣大蕩의 蕩의 개념, 治平의 概念 등 廣意로는 天機) 神의 屬性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藥物의 次元에서 이해한다면 補「」和「」는 (事), 健「」直「」(心), 壯「」而內收之力……(身), 固「」立「」(物) 등의 概念으로 緣系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東武遺稿에 나타난 각 약물은 逆으로 四象方의 運用을 유추해 봄으로써 그 效能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運用 例를 들어본다.

〈少陰人〉

少陰人의 保命之主는 陽援之氣이므로 이것이 유지되면 升陽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의 損傷 정도에 따른 陽氣의 有餘 不足은 少陰人 表證의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구분되며, 거기에 덧붙여 陰實之氣의 聚·散·輕·重에 따른 降陰의 장애에 의한 升陽이 되지 않는 症狀은 太陰症과 少陰症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保命之主가 어느 상태인가에 따라 病症의 表裏 輕重이 나타나며(동시에 그에 비례하는 性情의 변화도 나타남) 치료의 목표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充足 시키느냐에 있다. 그러면 事·心·身·物이란 保命之主의 次序는 病證에 따라 어떻게 배열될까?

(1) 表病

가. 鬱狂證

少陰人 鬱狂證의 치료목표는 升陽의 조건에 따라(事·心·身·物의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川芎桂枝湯식 방법 : 解肌(解鬱)만으로도 升陽이 이루어짐. 즉 身의 조건(천궁)과 物의 조건(감초)이 解鬱이란 작용하에 굳이 事와 心の 조건까지 동원되지 않더라도 升陽의 조건이 이루어진다. 즉 事와 心の 조건은 內部的으로 이미 구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2) 芎歸香蘇散식 방법 : 단순한 解鬱의 단계를 넘어서 物이란 조건외에 身의 두 가지 조건인 當歸, 川芎을 보충해야만 升陽의 조건이 이루어진다.

3) 八物君子湯식 방법 : 升陽의 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事(인삼), 心(백출), 身(당귀, 천궁), 物(감초)의 투여에 의하여 升陽의 조건을 만든다.

4) 白何烏君子湯식 방법 : 八物君子湯에 去人蔘하고 加 白何烏하였다. 陽氣가 거의 退進하여 人蔘의 生陽작용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에 肝氣分에 작용하여 生陽의 발판을 구축하는 白何首烏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八物君子湯의 升陽 조건보다 더 열악한 상태이다.

5) 十全大補湯식 방법 : 八物君子湯에 加 白何烏, 肉桂1錢 減 人蔘1錢하였다.

그러므로 事(인삼), 心(백출), 身(천궁, 당귀, 육계)의 3조건 모두 有), 物(감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生陽의 발판을 구축하는 白何烏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陽氣가 有餘한 상태의 鬱狂證 중 가장 열악한 상태이므로 완벽한 升陽의 조건을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事·心·身·物이란 입장에서 鬱狂證의 升陽의 단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川芎桂枝湯 : 甘草(物) + 川芎(身) … + … 桂枝, 白芍, 蒼朮, 陳皮
- ② 芎歸香蘇散 : 甘草(物) + 川芎(身) + 當歸(身) … + … 香附子, 蘇葉, 蔥蒼朮, 陳皮
- ③ 八物君子湯 : 甘草(物) + 川芎(身) + 當歸(身) + 白朮(心) + 人蔘(事) … + … 黃耆, 白芍, 陳皮
- ④ 白何烏君子湯 : 甘草(物) + 川芎(身) + 當歸(身) + 白朮(心) + (白何首烏) … + … 黃耆, 白芍, 陳皮
- ⑤ 十全大補湯 : 甘草(物) + 川芎(身) + 當歸(身) + 官桂(身) + 白朮(心) + 人蔘(事) + (白何首烏) … + … 黃耆, 白芍, 陳皮

따라서 物·身·心·事의 次元으로 病證의 진행에 따라 移行됨을 알 수 있다.

나. 亡陽證

少陰人의 亡陽證은 陽氣의 소멸 정도에 따라 初·中·末證으로 구분되므로 少陰人 病證治法의 대전제인 升陽에 이르기 위해서는 各證에 따른 保命之主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升陽의 필요충분 조건은 素證(陽氣不足)의 개선과 그로인한 亡陽의 저지에 있다. 亡陽證을 막는 升陽의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黃耆桂枝湯식 방법 : 亡陽初證으로 身(當歸), 物(甘草)의 조건만으로도 解鬱과 固表의 작용하여 亡陽을 저지하고 升陽의 기틀을 구축한다. 人蔘을 不用하고 굳이 白何烏를 용한 것은 아직도 生陽의 발판만 마련된다면 능히 生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완벽한 事의 조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2) 升陽益氣湯식 방법 : 단순한 解鬱과 固表의 단계를 넘어서 事(人蔘), 身(當歸, 肉桂), 物(甘草)의 조건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人蔘 2錢의 상태보다 人蔘과 白何烏의 합은 保命之主의 상태가 良好한 경우이다.

3) 補中益氣湯식 방법 : 亡陽證의 상황에서 升陽 조건을 대부분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事(人蔘), 心(白朮), 身(當歸), 物(甘草)의 조건하에 가장 약한 解鬱(蒼香, 蘇葉)과 固表(黃耆)란 작용에 가능하다.

東武는 이상의 3방을 亡陽初證에 用하고 더욱 악화되어 中·末證에 이르게 되면 亡陽危病에 이르게 되므로 脾元師之藥인 附子를 加하게 되어 아래의 4方を 제시 하였다.

4) 黃耆桂枝附子湯식 방법 : 身(當歸), 物(甘草)의 조건하에서 解鬱과 固表만으로도 亡陽의 저지와 升陽의 목표를 달성한다.

5) 人蔘桂枝附子湯 : 身(當歸), 物(甘草)의 조건외에 事(人蔘)의 조건이 보강된 상태에서 解鬱과 固表에 의해 달성된다.

6) 升陽益氣附子湯 : 身(當歸), 物(甘草)의 조건외에 身(官桂)와 事(人蔘)의 조건이 보강된 상태에서 解鬱과 固表에 의하여 달성된다.

7) 人蔘官桂附子湯 : 오직 固表의 상황에서 身(當歸, 官桂), 物(甘草)의 조건외에 事(人蔘)와 附子の 기능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事·心·身·物이란 입장에서 亡陽證의 升陽의 단계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少陰人 亡陽證

- ① 黃耆桂枝湯 : 甘草(物) + 當歸(身) + (白何烏) …+… 桂枝, 白芍, 黃耆
- ② 升陽益氣湯 : 甘草(物) + 當歸(身) + 官桂(身) + 人蔘(事) + (白何烏) …+… 桂枝, 白芍, 黃耆
- ③ 補中益氣湯 : 甘草(物) + 當歸(身) + 白朮(心) + 人蔘(事) …+… 蒼香, 蘇葉, 黃耆
- ④ 黃耆桂枝附子湯 : 甘草(物) + 當歸(身) + (附子) …+… 桂枝, 白芍, 黃耆
- ⑤ 人蔘桂枝附子湯 : 甘草(物) + 當歸(身) + 人蔘(事) + (附子) …+… 桂枝, 白芍, 黃耆
- ⑥ 升陽益氣附子湯 : 甘草(物) + 當歸(身) + 肉桂(身) + 人蔘(事) + (白何烏) + (附子) …+… 白芍, 黃耆
- ⑦ 人蔘官桂附子湯 : 甘草(物) + 當歸(身) + 肉桂(身) + 人蔘(事) + (附子) …+… 白芍, 黃耆

또 少陰人 裏病證은 陰實之氣의 聚·散·輕·重이 원인이 되므로 溫胃降陰, 健脾降陰이 治療의 目

標가 된다. 이에 陰實之氣의 輕症에서 重症의 次序는 다음과 같다고 思慮된다.

(2) 裏病

가. 太陰證

- 1) 桂枝半夏生薑湯 : 甘草(物) + 白朮(心) …… 생강, 계지, 반하, 백작, 진피
- 2) 藿香正氣散 : 甘草(物) + 肉桂(身) + 白朮(心) …… 枳殼, 소엽, 반하, 진피, 청피, 후박, 대복피, 건강, 익지인
- 3) 香砂養胃湯 : 甘草(物) + 白朮(心) + 人蔘(事) …… 향부자, 건강, 반하, 백작, 진피, 산사, 사인, 백두구, 생강, 대조
- 4) 赤白何烏寬中湯 : 백하오, 적하오, 양강, 건강, 청피, 진피, 향부자, 익지인, 대조
- 5) 當歸白何烏寬中湯 : 當歸(身) …… 同
- 6) 人蔘白何烏寬中湯 : 人蔘(事) …… 同
- 7) 人蔘陳皮湯 : 人蔘(事) …… 생강, 사인, 진피, 대조
- 8) 人蔘吳茱萸湯 : 官桂(身) + 當歸(身) + 人蔘(事) …… 오수유, 생강, 백작

나. 少陰證

- 1) 白何烏附子理中湯 : 甘草(物) + 白朮(心) …… 백하오, 백작, 건강, 계지, 진피, 부자
- 2) 官桂附子理中湯 : 甘草(物) + 官桂(身) + 白朮(心) + 人蔘(事) …… 백작, 건강, 진피, 부자
- 3) 吳茱萸附子理中湯 : 甘草(物) + 官桂(身) + 白朮(心) + 人蔘(事) …… 백작, 건강, 진피, 부자, 오수유, 소회향, 파고지

(3) 少陰人 藥物解析

1) 甘草의 용도는 少陰人 表證의 모든 處方에 사용되며, 裏證에서는 太陰證의 寬中湯類와 人蔘이 重用(1量)된 人蔘陳皮湯, 人蔘桂皮湯, 人蔘吳

茱萸湯을 제외한 모든 處方에 사용되었다.

즉, 升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太陰證의 重證인 上方의 경우는 단지 冷氣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 그것이 除去되면 升陽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少陰人 表證(鬱狂證과 亡陽證)에서는 升陽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少陰人 裏證의 少陰證에서도 단지 冷氣의 해소뿐만 아니라 升陽의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甘草는 升陽의 조건이 필요한 모든 症에 가장 基本的인 要素(物)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固脾立脾).

2) 川芎의 용도는 少陰人 表證의 모든 鬱狂證 處方에만 사용되고, 亡陽證과 少陰人 裏證의 太陰證과 少陰證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川芎은 陰實之氣가 없고, 陽氣가 비교적 有餘한 상태의 升陽에 사용되는 藥이라 생각한다(壯脾而外壤之力).

3) 當歸의 용도는 少陰人 表證의 鬱狂證중 가장 初證인 川芎桂枝湯을 제외한 鬱狂證과 亡陽證의 모든 處方에 사용되며, 단지 少陰人 裏證의 當歸白何烏寬中湯을 제외한 모든 太陰證 處方과 모든 少陰證 處方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當歸가 들어있다는 것은 오로지 升陽의 氣運을 빌린다는 의미이고 川芎桂枝湯의 경우 當歸가 관여하지 않아도 解鬱의 조건만으로도 升陽이 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少陰人 裏證의 경우 거의 이를 不用한 것은 溫胃, 健脾降陰만으로도 升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當歸白何烏寬中湯의 경우도 오로지 降陰의 목표보다는 升陽을 더 생각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壯脾而內收之力).

4) 肉桂의 용도는 少陰人 表證의 鬱狂證의 中·末證(十全大補湯), 亡陽證(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 人蔘官桂附子湯)과 裏證의 少陰證(…… 理中湯類)에 사용되어 升陽의 조건이 비교

적 良好하지 않은 상태에 사용하므로 이와같이 사용되는 약제는 강력한 升陽의 效果를 발휘하는 人蔘 혹은 當歸, 甘草와 裏證에서는 白朮이 함께 사용되었다.

5) 東武 藥性에 의한 身의 개념 藥인 壯脾而外壤之力(川芎), 內收之力(當歸), 內外充足之力(肉桂)의 구분은 保命之主의 어떤 상황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즉 川芎이 오직 升陽하여야 할 病證에서만 적용되는 藥이라면 當歸는 川芎보다 升陽의 여건이 불리한 鬱狂證과 亡陽證까지 적용되는 약이고 肉桂는 더욱 불리한 升陽의 여건이라 여겨지며 升陽之力的 순서는 肉桂가 가장 크고 當歸, 川芎의 순서라 생각되며 한가지 속성(壯脾……)으로 이해된다(壯脾而內外充足之力).

6) 白朮의 용도는 少陰人 表證인 鬱狂證의 中證以上과 裏證인 太陰證(寬中湯類 제외)과 少陰證에 사용되며, 亡陽證(補中益氣湯 제외)엔 사용되지 않는다.

健脾直脾란 人蔘의 補脾和脾의 次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升陽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鬱狂證 中證의 八物湯개념과(오로지 升陽만으로도 해결됨) 太陰初·中證(陰實之氣가 輕證이므로 溫胃降陰에 의해서도 升陽이 이루어짐)의 香砂養胃湯개념, 또 太陽證이 함께 나타나는 少陰證(脾陽氣가 거의 消盡될 상황이므로 健脾降陰의 적극적 방법이 동원되는바, 이는 升陽의 개념이 포함된 의미로 생각된다)에 사용된다.

즉, 太陰證의 中·末證의 寬中湯類 혹은 太陰 陰毒證의 人蔘陳皮湯類는 적극적인 升陽의 개념보다는 우선 陰實之氣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우선 목표이다. 이런 중에 白朮을 사용하면 陰實之氣가 解消되지 않은 상황에서 升陽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虛陽을 조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白朮은 保命之主의 餘力이 어느 정도 有餘할 때 사용하고 또 단순히 陰實之氣의 除去만으로는 升

陽이 일어나지 않는 少陰證에 사용한다.

7) 人蔘의 용도는 少陰人의 表·裏證을 막론하고 모두 사용되나, 단지 解鬱(桂枝, 香附子, 蘇葉, 蒼朮, 生薑 ……)만으로 升陽이 이루어지는 症과 단지 陰實之氣 解消에 用하는 寬中湯類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人蔘은 가장 적극적인 升陽의 방법이며 保命之主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1)에서 6)의 6가지 약물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保命之主를 構成하는 약물들로, 그 이외의 약물들은 이를 補佐하는 약물로 생각된다.

8) 黃耆의 용도는 升陽과 固表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少陰人에 있어서 단지 解鬱만으로도 升陽이 되는 表證의 鬱狂證 中·末證과 亡陽證 初·中·末證에 사용된다. 따라서 黃耆를 쓸 조건은 陰實之氣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升陽의 방법(鬱狂初證)으로는 升陽이 이루어지지 않는 積極的인 升陽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9) 白芍의 용도는 少陰人의 가장 강력한 解鬱之劑(桂枝를 사용하는 鬱狂初證의 川芎桂枝湯)의 사용시, 補中益氣湯을 제외한 亡陽證의 전부, 혹은 升陽의 餘力이 不足할 때(鬱狂證 中·末證, 太陰證 初證, 少陰證)에 脾의 元氣를 收斂하여 保命之主의 損傷을 예방한다. 그러므로 芎歸香蘇散證, 補中益氣湯證, 寬中湯證 등은 脾의 元氣가 損傷되지 않은 상태에서 升陽의 조건을 마련한다(收斂脾元).

10) 白何首烏의 용도는 人蔘의 경우보다 비교적 升陽의 餘力이 없는 경우에 用하여 鬱狂證의 白何烏君子湯, 十全大補湯, 香附子八物湯 등과 亡陽證의 升陽益氣湯, 黃耆桂枝湯, 升陽益氣附子湯 등과 太陰證의 寬中湯類, 少陰證의 白何烏理中湯, 白何烏附子理中湯 등에 사용된다.

11) 陳皮의 용도는 少陰人表證의 亡陽證을 제외하고, 鬱狂證과 裏證의 太陰證과 少陰證에 모두 사용된다. 단 亡陽證의 補中益氣湯證과 太陰

厥陰證의 人蔘吳茱萸湯證은 陳皮를 사용한다.(錯綜脾氣之參伍勻調)

12) 藿香의 용도는 亡陽證 初證의 補中益氣湯과 太陰證 初證의 藿香正氣散등에 사용되었다. 定氣 定魂이란 무엇일까?

東武는 「臟腑論」에서 前四海(津膏油液)에는 意慮操志가 감추어져 있고(臟), 後四海(脈·膜·血·精)에는 神靈魂魄이 藏되어 있고 또 神氣血精이란 前四海가 耳·目·鼻·口의 聽·視·嗅·味之力에 의하여 上·中上·中下·下焦에 充滿하게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少陰人의 性情은 喜情 藥性이다.

樂性이 深擴하면 神이 傷하고, 喜情이 深擴하면 慮가 傷하며 또 神氣血精중 氣가 傷하기 쉽다. 그러므로 傷氣와 함께 表證에 用한다면 定神 혹은 裏證에 用한다면 定慮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少陰人의 藿香에 해당하는 藥들인 少陽人의 拘己子(安神, 定志) 太陰人의 元肉, 酸棗仁(安神, 安意) 등이고,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性情의 이론들과 일치가 되나 少陰人에 있어서 定魂은 이해되지 않는다.

13) 蘇葉의 용도는 桂枝의 解鬱 작용보다 약하므로 少陰人 鬱狂初證의 芎歸香蘇散, 亡陽初證의 補中益氣湯, 太陰初證의 藿香正氣散 등에 解肌之表邪에 사용한다.

14) 桂枝의 용도는 「本草從新」에 “輕解肌 調營衛”라 하였으나 少陰人에 있어서는 強力한 解肌之劑로 작용하여 保命之主가 비교적 有餘한 鬱狂證初證(川芎桂枝湯證)에 收斂脾元하는 白芍과 作用하여 升陽의 목적을 돕고(桂枝+白芍), 그러나 保命之主가 더욱 損傷된 鬱狂證證末證에 이르면 桂枝+白芍 대신 補氣固表하는 黃耆를 사용하여 黃耆+白芍의 作用으로 升陽을 돕고, 亡陽證에 이르러서는 대개 桂枝+黃耆+白芍의 作用으로 素證의 改善과 그로 인한 亡陽의 저지로 升陽의 作用을 돕는다.

〈少陽人〉

또 少陽人의 保命之主는 陰清之氣이며 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治療의 目標가 되므로 表證은 陰氣의 有餘 不足에 따라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裏證은 胸膈熱證(中上焦熱證)의 過亢과 이로 인한 陰虛惡熱證(腎陰耗損)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少陽人 역시 保命之主의 有餘 不足에 따라 解鬱의 強弱이 조절되며, 廣義의 解鬱이란 東武遺稿의 本體의 要素이외의 藥物作用으로 保命之主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造成한다. 表證인 傷風證과 亡陰證을 降陰의 조건에 따라(事·心·身·物의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表病

가. 少陽傷風證

1) 荊防敗毒散式 方法: 表病中 가장 輕한 증상으로 解鬱의 조건만으로도 降陰이 이루어진다. 즉 姜活, 獨活, 荊芥, 防風으로 中上下焦의 울결을 해소함으로써 降陰의 조건을 마련한다. : 赤茯苓(物) …… 시호, 전호, 강활, 독활, 형개, 방풍, 생지황, 지골피, 차전자

2) 荊防導赤散式 方法: 木通(身) …… 생지황, 현삼, 과루인, 전호, 강활, 독활, 형개, 방풍

3) 導赤降氣湯式 方法: 茯苓(物) + 木通(身) + 澤瀉(身) …… 생지황, 현삼, 과루인, 전호, 강활, 독활, 형개, 방풍

4) 木通大安湯式 方法: 赤茯苓 + 木通(身) + 澤瀉(身) …… 생지황 + 황연 + 차전자 + 강활, 형개, 방풍

5) 黃連清腸湯式 方法: 茯苓(物) + 木通(身) + 澤瀉(身) …… 생지황 + 황연 + 저령 + 차전자 + 강활, 방풍

나. 亡陰證

1) 荊防瀉白散式 方法: 茯苓(물) + 澤瀉(身) +

知母(身) …… 생지황, 석고, 강활, 독활, 형개, 방풍

2) 猪苓車前子湯式 方法: 茯苓(物) + 澤瀉(身) + 知母(身) …… 저령, 차전자, 석고, 강활, 독활, 형개, 방풍

3) 滑石苦參湯式 方法: 茯苓(物) + 澤瀉(身) …… 활석, 고삼, 황연, 황백, 강활, 독활, 형개, 방풍

4) 荊防地黃湯式 方法: 茯苓(物) + 澤瀉(身) + 산수유(心) + 熟地黃(事) …… 차전자, 강활, 독활, 형개, 방풍

(2) 裏病

1) 地黃白虎湯式 方法: 知母(身) …… 석고, 생지황, 독활, 방풍

2) 陽毒白虎湯式 方法: 知母(身) …… 석고, 생지황, 형개, 방풍, 우방자

3) 涼膈散火湯式 方法: 知母(身) …… 석고, 생지황, 형개, 방풍, 인동, 연교, 치자, 박하

4) 忍冬藤地骨皮湯式 方法: 知母(身) + 山茱萸(心) …… 생지황, 형개, 방풍, 인동, 황백, 고삼, 구기자, 복분자, 금은화, 치자, 지골피, 황연, 현삼

5) 獨活地黃湯式 方法: 茯苓(物) + 澤瀉(身) + 山茱萸(心) + 熟地黃(事) …… 목단피, 독활, 방풍

6) 十二味地黃湯式 方法: 茯苓(物) + 澤瀉(身) + 山茱萸(心) + 熟地黃(事) …… 목단피, 형개, 방풍, 지골피, 현삼, 구기자, 복분자, 차전자

7) 熟地黃苦參湯式 方法: 茯苓(物) + 知母(身) + 澤瀉(身) + 山茱萸(心) + 熟地黃(事) …… 황백, 고삼

(3) 少陽人 藥物分析

가. 熟地黃

1) 사용예: 형방지황탕(망음말증), 숙지황고삼탕(하소), 독활지황탕(식체, 비만), 십이미지

황탕(하소)

2) 사용조건 : ① 숙지황이 사용된 처방에는 산수유, 복령, 택사 등이 동시에 사용된다. 즉 陰氣를 마련할 최대한 요소를 다 갖춘 상태로 소음인의 인삼과 같은 역할을 한다(補腎和腎).

② 陽氣가 熾盛함에 따라 陰氣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사용된다. 즉 생지황이나 석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음기가 아직 유여한 상풍증이나 단지 陽熱을 淸하여 陰氣가 下降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방지황탕의 응용에서 동무의 所作인지는 불분명하나 有火者 加 石菖하고 이때는 去 山茱萸한다 하였다. 또 頭痛煩熱與 血證者는 用 生地黃한다 하였다.

나. 山茱萸

1) 사용예 : 형방지황탕, 숙지황고삼탕, 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인동등지골피탕(中消證)

2) 사용조건 : ① 陰氣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 숙지, 복령, 택사 등과 같이 사용되었으나 裏證의 인동등지골피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下消의 십이미지황탕의 전단계에 사용되는 상태로 숙지, 복령, 택사 등의 補陰조건 대신에 지모+산수유의 세력에 의하여 中消證 상태에서 淸陽을 상승시킨다.

② 그러므로 산수유는 숙지황같이 陰氣생성의 마지막 보루는 아니지만 陰氣생성의 최소한 조건에서 이를 활성화 시킨다(健腎直腎).

다. 茯 苓

1) 사용예 : 거의 모든 表病證에 사용됨. 형방과독산(적복령), 도적강기탕(형방도적산 加 복령 택사). 목통대안탕(적복령), 황연청장탕, 활석고삼탕,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형방지황탕, 裏病……陰虛午熱證(下消의 숙지황고삼탕, 독활지황

탕, 십이미지황탕)에 사용되었으나, 胸膈熱證(上消證의 양격산화탕, 中消證의 인동등지골피탕, 이열변폐증의 지황백호탕, 양독백호탕)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사용조건 : ① 소음인의 감초와 같은 개념으로 거의 모든 표병증에 사용되고, 감초와 마찬가지로 오직 陰實之氣의 제거에 주력한 관중탕정신과 동일한 소양인의 胸膈熱證의 裏熱便閉證과 上中消에는 不用하였다. 즉 소양인 表病의 목표는 降陰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裏證의 胸膈熱證에서는 우선 降陰의 기본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석고 등으로 淸熱하면 저절로 淸陽의 上昇을 유도한다. 그러나 下消 등의 陰虛午熱證에 이르면 다시 表病에서처럼 기본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表氣란 인체의 선천적인 神氣血精의 가장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바탕이 되며 固*立*란 이를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복령의 固腎立腎이란 소양인의 腎陰氣를 근본적으로 보충하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소양인의 표증에 사용하고 裏病中 陰氣가 거의 소멸되는 陰虛午熱證에 해당하는 下消를 지탱하는 보루로 사용한다.

라. 知 母

1) 사용예 : 소양인 표병의 상풍증엔 불용. 亡陰證中 身寒腹痛泄瀉者에 사용하는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에는 不用하나 亡陰證中 身熱頭痛泄瀉者에 사용하는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에는 사용한다.

소양인 이병의 흉격열증(지황백호탕, 양독백호탕)과 상소와 중소(양격산화탕, 인동등지골피탕)에는 사용되나 하소증(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에는 不用한다. 그러나 신한복통설사의 망음이나 하소증에 모두 사용되는 숙지황고삼탕증에

는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지모는 대개 석고와 병행되며 혹은 생지황이나 황백 등과 함께 사용된다. 즉 腎家의 有餘之火와 上清肺金하여 瀉火補水 潤燥 滑腸하는 능력은 곧 壯腎하여 腎陰氣를 안에서 지키는 효과로 망음증이나 裏病의 백호탕증 혹은 상소 중소에 사용된다. 즉 아직은 陰氣를 壯腎하여 內守하는 작용만으로도 降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사용된다. 그러나 熱의 증상이 없다는 것은 곧 陰氣의 소멸을 말하며 이 때 지모를 사용한다면 음기의 고갈을 초래하게 되므로 망음증의 重證인 형방지황탕증이 裏證의 下消證에는 사용치 않았다.

마. 澤 瀉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傷風證(도적강기탕, 목통대안탕, 황연청장탕)과 亡陰證 모두에 사용되고 소양인 裏病의 胸膈熱證(지황백호탕, 양독백호탕)과 上中消(양격산화탕, 인동등지골피탕) 등에 불용하고, 下消證(독활지황탕, 십이미지황탕, 숙지황고삼탕)에 모두 사용된다.

2) 사용조건 : 腎의 氣運을 健壯하게하여 외부로 陰氣가 작동되게 하는 작용이므로 음기가 부족하거나 소멸단계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표병에서는 강음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병에서는 음청지기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바. 木 通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형방패독산을 제외한 모든 傷風證(형방도적산, 도적강기탕, 목통대안탕, 황연청장탕)에만 사용되었고 亡陰證이나 소양인 裏病證에는 불용한다.

2) 사용조건 : 단순히 解鬱의 단계(형방패독산)로 降陰의 목적을 이룰 경우는 이를 사용치 않는다. 그러나 降心火, 清肺熱하여 化津液하게

하는 목통은 소양인의 中上焦의 鬱熱을 清熱함으로써 강음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腎의 기운을 건장하게 하고 안팎을 충족하게 한다. 따라서 석고 등의 裏熱證의 망음증이나 흥격열증, 혹은 이미 陰氣가 고갈되어 생기는 산수유, 숙지황 등의 망음증이나 음허오열증에는 사용치 않는다.

사. 生地黄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상풍증 모두에 사용되고 망음초증의 형방사백산에 사용되며, 裏病의 흥격열증 모두와 음허오열증의 上中消에 사용된다. 그러나 망음증의 中·末證과 음허오열증의 下消證에는 사용치 않는다.

2) 사용조건 : 性은 大寒하고 入心腎, 瀉炳火, 清燥金, 平諸血逆의 작용은 소양인에 있어 흥부의 열증을 강음시키므로써 腎의 기운을 소통시켜 胃氣를 도와 消食進食하게 한다. 그러므로 음기가 거의 고갈상태로 흥부의 열증을 동반치 않는 경우에는 사용치 않는다.

아. 黃 柏

1) 사용예 : 소양인 表證의 상풍증과 裏證의 흥격열증에는 사용치 않고, 亡陰初證의 활석고삼탕과 中消證의 인동등지골피탕, 下消의 숙지황고삼탕에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대개 고삼(황연)과 함께 사용된다. 中上焦의 鬱熱이나 亡陰으로 腎의 원기가 소모되기 시작하는 망음초증과 소갈의 中消와 下消에 이를 수렴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牡丹皮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證에는 사용치 않고 裏病證중 下消의 독활지황탕과 십이미지황탕에만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下消와 食滯 痞滿에 사용되는 독

활지황탕과 십이미지황탕은 이미 表裏陰陽이 모두 허손된 상황이다.

카. 石膏

1) 사용예 : 소양인 상풍증에는 사용치 않았고 망음초증의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과 裏證의 흥격열증의 양독백호탕과 지황백호탕, 상소증의 양격산화탕에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소양인의 表證의 망음증 역시 表寒證으로 나타나지만 아직 陰氣의 저항으로 身熱을 포함하는 망음증이나, 단순히 熱證을 解함으로써 降陰을 이루는 백호탕증, 胃局의 淸陽이 상승하였으나 頭面四肢에 충족치 못할때의 上消證 등은 表裏證을 막론하고 모두 裏熱證을 구비한다. 즉 熱證의 존재는 아직은 亡陰의 重證이나 陰氣가 거의 허손된 단계는 아니다. 그러므로 석고가 사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음기가 有餘할 시에 사용한다. 그러므로 腎元氣가 부족하여 外熱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胃部까지 침범할때 사용한다. 즉, 표병의 망음증에서 脾陰不足의 단계를 넘어 위열증까지 이른 신열, 두통, 설사에 사용되고, 裏證의 脾腎陰氣가 아직은 남아있는 胃熱證의 백호탕증에 사용된다.

타. 荊芥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傷風證에 모두 사용(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도적강기탕, 목통대안탕)되고 망음증에 황연청장탕, 숙지황고삼탕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된다(활석고삼탕,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형방지황탕). 裏病의 양독백호탕과 消渴證(上, 中, 下消)에 이용되나 지황백호탕과 독활지황탕과, 망음증이나 하소에 사용되는 숙지황고삼탕은 사용치 않았다.

2) 사용조건 : 형개는 肝經氣分과 血分에 들어가 能發汗하고 散風濕한다. 그러므로 상풍증에는

당연히 방풍과 함께 상초의 풍습을 제거한다. 脾陰氣가 下降하지 못하는 亡陰證에서도 이를 사용하여 降陰을 유도한다. 한편 浮腫의 목통대안탕의 경우는 형개가 있으나 痢疾의 황연청장탕의 경우는 빠져있다. 이는 浮腫은 肝氣分血分에까지 간섭하여 散風濕하여 해결되는 병증이라면 痢疾은 방풍을 사용하여 搜肝瀉肺하고 脾胃經의 풍습을 제거하는 힘등을 빌린다. 즉 형개가 肝經氣血分까지 작용하는 힘에 의해 상초의 풍습을 제거한다면 방풍은 이보다 얕은 범위인 搜肝瀉肺하여 脾胃의 去濕에 의한 上焦의 풍습을 제거한다.

裏證의 양독백호탕은 治陽毒 發斑 便秘者에 사용하므로 이미 陽熱이 過亢하여 中上焦에 鬱結된 상태이므로 이를 사용하나 腎의 伏中火를 제거하는 독활을 쓸 단계의 여유는 없다.

파. 防風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傷風證에 모두 사용되고 亡陰證에 모두 사용되었다(단, 숙지황고삼탕 제외). 裏病의 胸膈熱證과 上中下消에 모두 사용되었다(단, 숙지황고삼탕 제외).

2) 사용조건 : 搜肝瀉肺하여 散頭目滯氣하고 脾胃經의 去風濕의 작용으로 소양인의 腎氣之表邪를 제거한다. 表病의 降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裏病의 胸膈熱證의 上焦熱證을 제거하기 위해 消渴證의 淸陽을 상승토록 하기 위해서는 형개보다도 우선 방풍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숙지황고삼탕은 이미 陰氣가 고갈상태에 있으므로 上焦(형개, 방풍) 下焦(강활, 독활)의 울열을 해소할 겨를이 없으므로 이들을 사용치 않았다.

카. 羌活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의 傷風證과 亡陰證에 모두 사용되었다(단 망음증의 숙지황고삼탕은 제외). 裏病證은 모두 사용치 않았다.

2) 사용조건 : 入足太陽膀胱하고 겸하여 肝腎氣分에 入한다. 督脈의 病(脊強而厥)에 사용되는 작용으로 방풍보다 腎氣之表邪를 제거함이 방풍보다 더욱 강하다(解腎氣之表邪羌活尤力)

裏病의 흥격열증, 음허오열증에 전혀 사용치 않았다. 만약 興격열증을 제거하거나 혹은 淸陽을 上昇시키는데 강력한 腎氣之表邪를 제거하는 강활을 사용한다면 陰氣의 손상을 유도하지 않을까?

소양인의 表病의 降表陰은 강(獨)형방의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裏病의 경우는 병증의 조건에 따라 독활과 방풍, 형개와 방풍 등이 사용된다.

하. 獨 活

1) 사용예 : 소양인 表病證 中 목통대안탕과 황연청장탕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되고 亡陰證 中 숙지황고삼탕은 제외되었다. 裏病證中 興격열증의 지황백호탕과 독활지황탕만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表病中 상풍증은 평상시에 陰氣가 유여한 상태에서 降陰이 안되어 오지만, 이것이 重證으로 나타나면 이질, 부종으로 나타난다. 腎氣分에 入하여 理伏風하는 세력은 신음기가 유여할 때 사용되나 이질 부종의 병증은 이미 腎陰氣의 근본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독활을 사용치 않았다. 그러므로 陰氣가 아직 유여한 상태에서의 병증, 즉 傷風證(이질, 부종 제외)에서 사용되고 지황백호탕(표리증개념)과 독활지황탕(食滯 痞滿은 陰氣가 아직 유여한 병증임)에 사용되었다. 즉, 사상방은 병증이 심할수록 保命之主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처방구성이 이루어진다.

환언하면 병증과 保命之主를 관계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질병치료의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正氣를 도아 邪氣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직접 邪氣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사상의학의 접근방법은 전자의 방법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각 사상인의 보명지주를

간접적인 방법(상중하초의 울체제거)에 의해 正氣가 스스로 회복토록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이를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A란 효과의 약물이 사용됨은 A란 사기를 직접 제거하기 위해 사용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保命之主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재 정기의 상태가 A효과 등의 조건에 의해 정상화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의 정기단계가 A효과에 의해 정상화됨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A효과가 필요없는 경우의 정기과 악도 중요하다.

〈太 陰 人〉

태음인의 保命之主는 呼散之氣이므로 胃脘受寒表寒病은 呼散之氣의 上升有餘不足에 따라 太陽寒厥證과 肺燥寒證(?)으로 구분되며 肝受熱裏熱病은 吸聚之氣의 鬱滯에 의한 熱證으로 肝燥熱證과 燥澁便閉證으로 구분된다.

太陽寒厥證은 肺 胃脘의 呼散之氣가 寒邪의 침입으로 升 혹은 降하는 正邪의 항쟁으로 寒熱이 교대되는 증세이며, 이것이 더욱 진행되어 呼散之氣의 손상을 입게되면 肺燥寒證이 나타나게 되어 食滯痞滿 腿脚無力 咳嗽證등이 생긴다.

(1) 表病

- 1) 麻黃發表湯 : 桔梗(身) + 麥門(事) …… 마황, 황금, 행인, 승마, 백과
- 2) 麻黃定喘湯 : 桔梗(身) + 麥門(事) …… 마황, 황금, 행인, 나복자, 상백피, 관동화, 백과
- 3) 寒多熱少湯 : 桔梗(身) + 麥門(事) …… 마황, 황금, 행인, 의이인, 건을, 나복자
- 4) 調理肺元湯 : 桔梗(身) + 麥門(事) …… 마황, 황금, 의이인, 나복자

5) 太陰調胃湯 : 桔梗(身) + 麥門(事) + 五味子(心) …… 마황, 의이인, 건울, 나복자, 석창포

6) 麻黃定痛湯 : 桔梗(身) + 麥門(事) + 五味子(心) …… 마황, 의이인, 건울, 나복자, 석창포, 원육, 행인, 백자인, 사군자

7) 調胃升清湯 : 桔梗(身) + 麥門(事) + 五味子(心) …… 마황, 의이인, 건울, 나복자, 석창포, 원육, 원지, 천문동, 산조인

8) 鹿茸大補湯 : 桔梗(身) + 麥門(事) + 五味子(心) …… 마황, 행인, 의이인, 천문동, 녹용

9) 補肺元湯 : 山藥(身) + 麥門(事) + 五味子(心) + 山藥(身) …… 의이인, 나복자

(2) 裏病

1) 自角大黃湯 : …… 갈근, 승마, 조각, 대황

2) 葛根承氣湯 : 桔梗(身) …… 갈근, 황금, 승마, 백지, 대황

3) 葛根解肌湯 : 桔梗(身) …… 갈근, 황금, 고본, 승마, 백지

4) 熱多寒少湯 : 桔梗(身) …… 갈근, 황금, 고본, 승마, 백지, 나복자

5) 清肺寫肝湯 : 桔梗(身) …… 갈근, 황금, 고본, 승마, 백지, 나복자, 대황

6) 清心連子湯 : 山藥(身) + 麥門(事) …… 연육, 백자인, 황금, 나복자, 석창포, 원육, 원지, 천문동, 산조인

7) 共辰黑元丹 : 山藥(身) …… 천문, 제조, 오매육, 사향, 녹용

(3) 太陰人 藥物分析

가. 麥門冬

1) 사용예 : 모든 태음인 表病人 마황발표탕, 마황정천탕, 한다열소탕, 조리폐원탕, 태음조위탕, 마황정통탕, 조위승청탕, 녹용대보탕, 보폐원탕과 리병의 청심연자탕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소음인의 인삼(補脾和脾)과 소양인의 숙지황(補腎火腎)은 각각 陽暖之氣와 陰清之氣를 升陽이 단순한 發表로 이루어지지 않고 健肺直肺의 조건하에서 일어나는 경우, 즉 길경+맥문동의 승양의 조건하에도 호산지기가 제대로 상승되지 않을때는 이미 상초가 조해진 상태이므로 오미자의 補肺腎蓄精氣의 작용으로 건폐직폐시켜 이를 보충한다.

나. 山藥

1) 사용예 : 表病의 녹용대보탕과 보폐원탕에만 사용하고, 裏病의 청심연자탕과 공진흑원단에만 사용한다.

2) 사용조건 : 補脾肺氣不足하고 肺爲腎母이므로 益腎強陰하는 작용으로 壯肺而內守之力한다. 그러므로 山藥이 사용되려면 이미 보명지주인 폐의 호산지기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오는 병증이므로 폐자체의 윤조를 목적으로 하는 약제와(녹용, 천문동, 맥문동, 원육, 산조인)병용하여 사용된다.

다. 桔梗

1) 사용예 : 태음인 표병증 녹용대보탕을 제외하고 모든 처방에 사용되며, 이병증 청심연자탕과 조각대황탕을 제외하고 모든 처방에 사용된다.

2) 사용조건 : 輕發汗시켜 瀉火散寒載藥上浮하고 開提氣血하는 작용으로 壯肺而外攘之力으로 호산지력을 升提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陰血耗渴이 원인이 되는 表病의 녹용대보탕과 裏病의 공진흑원단, 청심연자탕등은 제외되었다. 만일 이때 길경을 사용하면 陰血의 耗損을 조장하게 된다. 또 裏熱證의 蒸寒壯熱, 燥澁者등의 清熱만을 목표로 하는 조각대황탕 등에서는 불용한다.

라. 石菖蒲

1) 사용예 : 表病의 갈근나복자탕, 태음조위탕, 마황정통탕, 조위승청탕과 裏病의 청심연자탕에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胃脘之氣를 上昇시키는데 發表 혹은 清熱의 한계를 지나 潤燥의 조건을 동원해야 되는 경우에 肺氣의 혼트러진(錯綜)상태를 바로잡는 상태가 요구된다. 그러나 陰血의 耗損 상태에서 사용시 오히려 耗損을 조장할 수 있다.

마. 黃芩

1) 사용예 : 表病中 마황발표탕, 마황정천탕, 한다열소탕, 조리폐원탕, 갈근나복자탕에 사용되었고 裏病中 갈근해기탕, 갈근승기탕, 열다한소탕, 청폐사간탕, 청심연자탕에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황금은 瀉肺火 瀉中焦實火하므로 正氣 邪氣란 입장에서 正氣가 강력히 반발하는 實熱의 病證개념에 사용된다. 즉 表病에서는 발열을 수반하는 輕證등에 사용되고, 裏病에서는 燥熱證으로 이를 사용하나, 蒸寒壯熱 燥澁者 등의 急證에는 이를 사용할 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바. 麻黃

1) 사용예 : 보폐원탕을 제외한 모든 表病證에 사용되었으나 裏病證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2) 사용조건 : 肺의 表邪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呼散之氣를 升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이는 소양인의 表病에만 사용되는 강활등과 같은 용도로 營中의 寒邪를 去하여 疏通氣血하여 呼散之氣의 上昇을 방해하는 鬱滯를 풀어준다. 山藥이 사용된 보폐원탕에 麻黃이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陰血耗損 단계의 病證에 山藥이 사용되므로 이때 麻黃을 사용하면 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마황은 表證에 있어 發表를 이겨낼 수 없는, 즉 陰

氣가 이미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 蘿蔔子

1) 사용예 : 表病證中 마황발표탕과 녹용대보탕을 제외한 모든 처방에 사용되었고 裏病證中 열다한소탕과 청폐사간탕과 청심연자탕에만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 즉 胃脘이 受寒함으로써 혹은 肝受熱하여 肺燥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發表(마황발표탕) 혹은 清裏熱(갈근해기탕 갈근승기탕)하여도 升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미 痰이라는 內熱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하므로 破氣除痰 消食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나복자의 不用의 경우는 단순한 發表만으로 升提가 이루어지거나 이미 陰血의 耗損으로 오는 경우이므로 痰이라는 개념의 병증도 邪氣에 대항하는 精氣의 능력이 陰血耗損의 精氣에 비하여 비교적 완강할 경우에 오는 병증으로 사려된다.

아. 薏苡仁

1) 사용예 : 表病證中 마황발표탕, 마황정천탕을 제외하고 전부 사용되었고, 裏病證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 사용조건 : 胃脘之氣의 上升(呼散之氣의 上升)이 太陰人 病證의 목표가 되므로 呼散之氣의 輕重에 의하여 病證의 昇降이 결정되므로 脾胃氣運의 鬱滯로 肺氣의 舒伸이 안될때 補脾肺通行水의 작용으로 太陰人에 있어 開肺之胃氣이 消食進食시켜 胃脘之氣를 上升시킨다. 그러므로 의이인은 脾胃濕熱에 기인한 胃脘之氣(呼散之氣)의 不升을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자. 黃栗

1) 사용예 : 表病證의 한다열소탕, 태음조위

탕, 마황정통탕, 조위승청탕에 사용되었고 裏病證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2) 사용조건: 黃栗의 厚腸胃 補腎氣의 조건은 胃脘受寒하여 胃脘之氣가 不升하여 腸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한다.

카. 大 黃

1) 사용예: 表病에는 전혀 사용치 않았고 裏病의 조각대황탕, 갈근승기탕, 청폐사간탕 등에 사용되었다.

2) 사용조건: 大黃은 脾, 胃, 心胞, 肝, 大腸의 血分의 實熱을 瀉하여 積滯를 풀어준다.

즉 肝受熱 裏熱證의 단계로 볼때 그 정도가 輕하여 肝熱이 肌肉之間에 鬱滯하여 생기는 病證(갈근해기탕증)이나 아직은 大腸의 熱證에 이르지 않은 病證(열다한소탕) - 이는 胸腹의 熱證으로 氣分을 傷함 - 또 熱證으로 血分을 傷함 - 더욱 진행되어 大腸의 熱證으로 轉移되어 便閉證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大黃은 葛根 黃芩 등을 사용한 輕證의 裏熱證이나 이미 保命之主가 손상되어 陰血耗損에 이른 病證에는 사용치 않고 肝熱氣가 熾盛한 상태에서 臟과 腑가(간, 대장) 모두 受熱한 병증에 사용된다.

타. 升 麻

1) 사용예: 太陰人 表病에는 사용된 바 없으나 오직 태음조위탕 加 승마 황금의 응용예가 있으며, 裏病證에는 갈근해기탕, 갈근승기탕, 조각대황탕, 열다한소탕, 청폐사간탕 등에는 사용되었고 청심연자탕과 공진혹원단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 사용조건: 手足太陰陽明의 鬱火를 表部位로 升而散之하는 바(陽明의 淸氣를 끌어 上行시킨다) 裏病에 있어 양명열증을 수반하는 上記 病

證 등에는 사용되나 그 단계가 지나 燥證으로 나타나는 청심연자탕, 공진혹원단 등은 이를 사용할 경우 升散의 작용으로 더욱 陰液의 耗損을 일으킬 수 있다. 朱肱曰 “下元虛者 이를 사용하여 升之하면 더욱 虛를 조장한다”고 하였다.

파. 白 芷

1) 사용예: 表病에는 전혀 사용치 않았고, 裏病에 갈근해기탕, 갈근승기탕, 열다한소탕, 청폐사간탕 등은 사용되었고 조각대황탕, 청심연자탕, 공진혹원단 등은 사용치 않았다.

2) 사용조건: 肌肉之間 혹은 臟腑의 熱證을 發表去風燥濕의 작용으로 三經(폐, 위, 대장)의 風熱과 濕熱을 갈근, 황금, 고본, 승마, 백지와 함께 제거한다. 그러나 燥性으로 능히 耗型損氣시키므로 燥病이나 더욱 진행된 陰血耗損 증후에는 사용할 수 없고 裏熱便閉證이 극심한 조각대황탕 등에는 사용치 않았다.

하. 藜 蘆 本

1) 사용예: 表病에는 전혀 사용치 않았고, 裏病에는 갈근해기탕, 열다한소탕, 청폐사간탕 등에 사용되었고 갈근승기탕, 조각대황탕, 청심연자탕, 공진혹원단 등에는 사용치 않았다.

2) 사용조건: 太陽經風藥의 去風寒濕의 작용으로 갈근, 황금, 승마, 백지와 합세하여 燥熱證을 解하는데 사용되나 增寒壯熱 燥溢者와 陰血耗損者에게는 사용치 않았다.

〈太 陽 人〉

태양인은 衰性遠散而 怒情促急하고 태양인의 聽은 能廣博於天時하나 太陽之嗅는 不能廣博於人倫하다. 그러므로 태양인 表病은 不能廣博於人倫

에 있으므로 太陽人의 血은 腰脊에서 不充足하는 데서 오게 된다. 이는 解體證으로 나타난다.

태양인 裏病은 怒情을 다스리지 못하여 暴怒하게 되면 交遇에 대한 擇交之心이 不廣하여 黨與를 경솔히 여겨 傷臟(肝, 小腸)하게 된다. 이는 小腸이 陰涼한 氣液을 吸하는 작용이 부족하여 胃脘에서 呼散하는 氣液의 陽溫之氣가 반드시 盛하게 되고 이것이 太過하면 음식이 다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表病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上焦의 過亢으로 생기는 鬱滯를 풀어주어 重證에 이르러서는 補肝의 방법을 쓰고 裏病은 上焦의 過亢을 없애면서 궁극적으로 肝血分의 상승을 유도한다.

동무는 약의 경험이 넓지 못한 것은 병의 경험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니, 태양인은 그 수가 옛적부터 희소하기 때문에 方畧중에 그에 대한 證과 藥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태양인 表裏病證에 각각 한가지씩의 처방만 제시하였고, 또 동무 유고에는 태양인 약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므로 동무의 약제와 처방에 대한 해석은 상당한 難解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음인과 소양인의 病證 藥理가 상대가 되듯이 태양인의 病證藥理도 태음인 病證藥理에 의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다고 사려된다.

즉, 소음인과 소양인의 병증약리는 中上焦(脾, 胃)와 下焦(腎, 大腸)간의 升降의 병증이므로 울광증과 상풍증, 망양증과 망음증, 태음증의 이증탕, 관중탕 개념과 흥격열증의 백호탕개념, 소음증과 소갈증 등이 비슷한 병증약리로 구성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인의 병증약리도 表病의 초기에는 上焦의 過亢한 呼散之氣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裏病은 吸聚之氣의 부족에서 생기는 補肝을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고 사려된다. 그러므로 表病은 身의 內守之力의 개념약과 事의 補肝和肝 위주가 되고 陽亢을 억제하면서 나머지

는 陽亢이 歸肝할 수 있는 약 등으로 구성되고, 裏病은 小腸의 吸氣液하는 陰涼之氣가 부족하여 陽溫之氣가 반드시 盛하게 되고 이로 인해 胃脘血液이 마르게 되므로 毒와 身의 개념약의 보간과 동시에 陽瘟氣를 淸熱시키는 藥등으로 구성된다고 사려된다.

(1) 表 病

五加皮壯脊湯：五加皮(事) + 木瓜(身) ……포도근, 앵도육, 송절, 노근, 교맥

(2) 裏 病

獼猴藤植腸湯：五茄皮(事) + 木瓜(身) ……미후등, 포도근, 앵도육, 송화, 저두강

(3) 太陽人 藥物分析

이와같은 가정하에 表裏病의 두 처방을 비교해 본 결과 表病에만 사용되는 약은 미후등, 송화, 저도강이고 表裏共用藥은 오가피, 모과, 포도근, 앵도육이다.

1) 五茄皮：入 肝·腎하여 去風濕, 補壯筋骨하므로 결과적으로 事의 補肝和肝개념약으로 표리병증에 공용된다.

2) 木 瓜：入 肝·脾하여 斂肺伐肝化食하고 氣脫能收, 氣滯能和하므로 身개념 약중 壯肝而內守之力의 개념약으로 표리병증에 공용된다.

3) 松 節：入 心·肺經하고 苦溫而燥하여 骨節間之風濕을 治하므로 少陰人의 소염, 少陽人의 방풍, 강활, 太陰人의 마황 등과 같은 개념으로 解肝之表邪하는 약으로 사려되고 표병에 사용된다.

4) 蘆 根：甘寒하여 入 肺·胃經(혹 肝脾經)하고 淸熱, 生津, 除煩, 止嘔하여 위열 구토, 열격, 반위에 사용한다 하였고 淸降肺胃하므로 양항지세를 견제한다.

5) 薺麥 : 甘寒하고 降氣寬腸하고 治腸胃沈積하여 노근과 함께 양항지세를 견제한다.

6) 獼猴藤(桃)은 寒性으로 煩渴, 熱壅, 反胃 등을 다스리므로 太陰人 裏病證의 갈근과 같은 역할로 사려된다.

Ⅲ. 結 論

四象方劑 構成에 대한 분석을 동무의 철학적 바탕인 事·心·身·物의 조건하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少陰人과 少陽人과 太陰人의 表裏病의 初證은 거의 傷寒方의 應用이 많았고 中·末證에 이르면 少陰人 處方이 宋·元·明 醫家의 처방응용이 가장 많고, 少陽人, 太陰人의 순서로 그 응용이 적어지고 太陽人 處方은 전혀 새로운 의미의 處方構成을 갖는다.

2) 東武의 四象方劑 構成 및 運用의 근본은 그의 哲學的 基底인 事·心·身·物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 次序는 각 체질의 保命之主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3) 동무 유고의 본초약성은 事·心·身·物에 직접 관여하는 요소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4) 少陰人과 少陽人은 中上焦와 下焦의 상관성에서 유사한 方劑의 구성을 보이며 太陰人과 太陽人도 上焦와 中下焦 사이에서 유사한 方劑을 용을 갖는다고 사려된다.

5) 병증의 변천에 따라 사상방의 약물 가감이 다음과 같은 순서의 경향성을 갖는다(표2 참조).

① 소음인 表證의 鬱狂證은 감초(物) + 천궁(身-外攘) + 백출(心) + 인삼(事)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亡陽證은 감초(物) + 당귀(身-內守) + 백출(心) + 인삼(事)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表證의 太

(表 2)

소음인	表	울광증 망양증	감초(物) + 천궁(身-外攘) + 백출(心) + 인삼(事) 감초(物) + 당귀(身-內守) + 백출(心) + 인삼(事)
	裡	태음증 소음증	감초(物) + 백출(心) + 육계(身-充足) + 인삼(事) 감초(物) + 백출(心) + 육계(身-充足) + 인삼(事)
소양인	表	상풍증 망음증	(적)복령(物) + 목통(身-充足) + 택사(身-外攘) 복령(物) + 택사(身-外攘) + 지모(身-內守) + 산수유(心) + 숙지황(事)
	裡	홍격열증 음허오열증	지모(身-內守) + 산수유(心) 복령(物) + 택사(身-外攘) + 산수유(心) + 숙지황(事)
태음인	表	태양한결증 폐조한증	길경(身-外攘) + 맥문(事) 길경(身-外攘) + 오미자(心) + 맥문(事) + 산약(身-內守)
	裡	조삼변폐증 간조열증	길경(身-外攘) 길경(身-外攘) + 산약(身-內守) + 맥문(事)
태양인	表	解休	모과(身-內守) + 오가피(事)
	裡	噎膈	모과(身-內守) + 오가피(事)

陰證은 감초(物) + 백출(心) + 육계(身-充足) + 인삼(事)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少陰證은 감초(物) + 백출(心) + 육계(身-充足) + 인삼(事)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② 소양인 表證의 傷風證은 (적)복령(物) + 목통(身-充足) + 택사(身-外攘)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亡陰證은 복령(物) + 택사(身-外攘) + 지모(身-內守) + 산수유(心) + 숙지황(事)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裏證의 胸膈熱證은 지모(身-內守)의 개념에서 시작되고 消渴證은 지모(身-內守) + 산수유(心) + 복령(物) + 숙지황(事)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③ 태음인의 表證의 太陽寒厥證은 길경(身-外攘) + 맥문(事)의 개념에서 시작되고 肺燥寒證은 길경(身-外攘) + 오미자(心) + 맥문(事) + 산약(身-內守)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裏證의 燥澁便閉證은 길경(身-外攘)의 개념으로

로 시작되고 肝燥熱證은 길경(身)+산약(身-內守)+맥문(事)등의 순서로 발전한다.

④ 태양인의 약제중 모과는 身(壯肝而內守之力)의 藥, 오가피는 補肝和肝의 藥으로 사려된다.

参 考 文 獻

1. 李濟馬 著：格致藥. 서울. 太陽출판사. 1985.
2. 李濟馬 著：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出版社. 1970.

少陰人 病證과 處方 및 藥劑分類

(胃受寒 裏寒病) 裏 表 (腎受熱 表熱病)

						계지반하생강탕	초	초	천궁계지탕										
						곽향정기산	대	울	궁귀향소산										
						항사양위탕	중	음	백하오군자탕										
						관중탕	중	음	팔문군자탕										
						인삼양위탕	말	말	십전대보탕										
						임삼오수유탕			독삼팔물탕										
						백하오부자 이중탕	초	초	황기계지탕										
						관계부자 이중탕	중	음	승양의기탕										
						오수유부자 이중탕	말	말	보중익기탕										
									황기계지부자탕										
									인삼계지부자탕										
									승양익기부자탕										
									인삼관계부자탕										

건계부진백황관천당감백인

강지자피작기계궁귀초출삼

—— 加味方에 포함됨
 - - - - - 없음
 ——— 처방內에 포함

인백감당천관황백진부계진

삼출초귀궁계기작피자지장

